

# 검열과 블랙리스트, 징후에서 연대로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 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엮음, 연극과인간, 2017)

이주영\*

## 〈국문초록〉

세상이 하 수상함을 연극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걸까. 혹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쌓이기 시작한 곪아 썩어가는 문제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억지가 정당화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연극적 경고였을까. 1990년대 이후로 조용하던 정치극·사회극들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치 붓물 터지듯 다시 극장 무대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3년도에 정치극·사회극이 집중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흥미롭고 공교롭게도 2013년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두 정부가 교차하는, 즉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해였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펴낸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에서는 ‘검열’, ‘블랙리스트’ 등 공연계에 행한 정부의 불온하고 불순한 실체와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예술 검열에 대한 예술적 저항들을 기록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광장의 힘을 보여준 예술과 시민 연대에 동참한다.

## 1. 징후

세상이 하 수상함을 연극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걸까. 혹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쌓이기 시작한 곪아 썩어가는 문제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억지가 정당화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연극적 경고였을까. 1990년대 이후로 조용하던 정치극·사회극들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치 붓물 터지듯 다시 극장 무

---

\* 고려대학교

대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자 연극관객들은 사회·정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극장에서 볼 수 있었다. 혜화동1번지 페스티벌인 ‘국가보안법’, 한국의 근대현대사에 주목한 ‘100페스티벌’, 한국사회의 거대담론 속에서 잊히고 사라진 사람들과 사건들을 무대화한 ‘변방연극제’의 ‘사건일지 - 과거의 미래’, 국립극단 기획의 정치풍자극 ‘아리스토파네스 3부작’, 미시적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문제적 순간들을 그려낸 <알리바이 연대기>(김재엽 작, 연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극화한 <해피투게더>(이수인 작, 연출) 등 현장의 연극인들은 과거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적 사건, 이슈, 사유해야 할 문제들을 다양한 연극적 방식으로 점검하고 비판하였다. 평론계에서도 이러한 연극계 현상에 대해 비평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와 한국소극장협회는 ‘정치, 정치극, 정치미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장 연극인들과 함께 현 사회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 고민하였다. 2010년대 이후 달라진 연극계 상황, 특히 ‘2013년도’에 정치극·사회극이 집중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앞서 언급한 모든 작품들과 학술세미나가 이 해에 관객들과 만나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흥미롭고 공교롭게도 2013년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두 정부가 교차하는, 즉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해였다.

2010년대를 전후로 하여 한국사회의 문제적 징후들이 2013년 시점에서 사회극·정치극으로 무대화되었고, 이러한 연극계의 건강한 비판 과정에서 또 다른 불온한 징후가 연극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아리스토파네스 3부작 중 하나인 <개구리>(아리스토파네스 작, 박근형 연출, 9.3~15)가 국립극단 기획으로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사이,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국립극단 연극 논란」(『중앙일보』, 2013.9.12.)이란 제목의 기사가 논란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깎아내리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극

을 만든 게 국립극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요지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해서는 안 된다’는 밀도 끝도 없는 억지가 오히려 더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개구리> 사건에 대해 “은유와 풍자보다 지나치게 직설화법이 많은 게 다소 유감이지만, 이러한 연극을 현재 상황에서 국립극단이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애매모호하면서 유감스런 발언을 한 당시 국립극단 손진책 예술감독은 그해 예술감독 연임에 실패하였다. <개구리> 사건과 손진책 예술감독의 연임 실패, 이 두 사건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정확한 고리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당시 연극인들은 직감적으로 정부의 문화계에 대한 태도에서 수상쩍고 불온한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불온한 징후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비극인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펴낸 총 3부 구성의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 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이하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에서는, 불온한 징후의 실체와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1부), 정부의 예술 검열에 대한 예술적 저항들을 기록하며(2부), 여기서 더 나아가 광장의 힘을 보여준 예술과 시민 연대에 동참한다(3부).

## 2. 실체

2014년 4월 16일 이후 공연계는 정부의 눈엍가시로 빠르게 ‘성장’한다.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한민국 최악의 재난사고인 ‘세월호 참사’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연계의 움직임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추모공연으로 이어졌다. ‘세월호’와 ‘노란 리본’에 병적인 반응을 보였던 박근혜 정부는 연극 <개구리>에서 보였던 불온한 징후를 본격적인 검열 체제로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어처구니없게도 국가는 국민의 아픔, 그리고 이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은폐와 검열로 다스리려 했던 것이다. 본 저서가 공연계 전반에 행해진 정부의 ‘검열’에 주목하면서도 저서명에 ‘세월호 이후’를 넣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책 제목에 ‘세월호 이후’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블랙리스트의 실행과 작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는 가장 강력한 금기어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세월호를 추모하는 공연은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며, 작품에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들만 포함되어도 공연이 저지되었다. (김미도,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를 엮으며』, 8면)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금기어”였던 ‘세월호’ 이를 적극적으로 연극무대 안으로 호출한 연극인들은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감시·관리되었다. 세월호 비극 이후 공연계를 향한 정부의 검열 신호탄이자 은폐된 폭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사건은 2014년 11월에 있었던 2015서울연극제 대관 심의 탈락이었다. 이어 ‘2015년 창작산실’ 심의 검열(2015.4),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사건, 앙상블 시나위의 <소월산천> 검열 사건(이상 2015.10)으로 전개되는 정부의 검열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문화계의 검열과 블랙리스트가 언론화되었다. 박근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창작산실’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2015년 9월 9일자 JTBC 뉴스 보도와 예술인 9,473명의 이름이 적힌 10월 12일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검열과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블랙리스트로 검열하다”라는 제목의 본서 1부에는 불온한 징후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그리고 검열과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기록한 총 12편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1부의 첫 글이자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의 시작을 연 연극평론가 최윤우의 「2015 서울연극제 대관 심의 탈락으로 촉발된 검열에의 의혹」은 검열의 신호탄이 된 서울연극제 대관 심의 탈락 사건의 추이를 기록한 글이다. 이는 본 사건의 시작과 진행 과정, 연극인의 대응방식 등을 낱짜순으로 매우 세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5년 3월에 발표된 이 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했다. 검열이 아닌 검열 ‘의혹’이었고, 내용에서는 검열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표적 심의’로 사태를 서술한다.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대한 강력한 의심과 비판, 그리고 저항 대신 공공기간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쓴 이양구의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성 훼손에 대하여」에서도 공공성을 문제시한다. 한국예술문화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정부는 연극계에서 검열과 블랙리스트가 공공성으로만 논의될 때 말을 들었어야 했다.

연극계의 경고를 무시한 문예위와 정부는 ‘창작산살’의 심의 검열에 대한 소문과 JTBC의 보도,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신문기사와 뉴스보도, 국정감사 자료 등 ‘팩트’에 근거하여 검열의 실체를 드러내고 날카로운 비판을 시도한 노이정, 김방옥, 고연옥, 이동연 등이 쓴 1부의 글들은 “정부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검열하고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스스로 시인”(고연옥)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미도는 블랙리스트 관련한 4편의 연작 글에서 놀라운 사실을 폭로하는데, 이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가 박근혜의 <개구리>가 공연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진행되었음을 밝혀낸다. 또한 김미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참관하면서 세월호 사건의 은폐, 검열과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기이하고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괴이함의 탄생에 대하여 박근혜와 김기춘은 “타자의 관점에서 사유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으며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로 말끔히 정리한다.

연극인들, 공연계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과 공연문화계를 겨냥한 정부의 검열과 블랙리스트 작동 및 지시에 분노했고 화수분처럼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추악의 실체에 김방옥의 언급처럼 당혹감, 허탈감, 자괴감마저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열 주체를 향한 연극인들의 연대적 저항은 견고하였다. 물론 내부적 비판도 있었다. 이동연 글에서 언급한 앙상블 시나위 검열 사태에 침묵했던 국악계, 그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검열이 정지된 상황은 공연계 사람들이 검열사태에 임해야 할 자세와 예술이 나아가갈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검열과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졌다. 연극인들은 극장 안에서, 그 공공의장에서 검열 주체와 맞설 연극적 저항을 폭발시킨다.

### 3. 극장

대한민국의 연극인들이 연대의 방식으로 극장 안에 혁명과 선언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전부터 사회의 병폐를 담는 데 앞장섰던 장르가 연극이었다. 정부의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회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고 성장해온 연극에 겁도 없이 무식하게 공격을 가한 셈이다. 이에 김수희, 윤한술, 이양구 세 연출가가 모여 현 사태에 대해 연극적 대응을 결의하였고, 그 결과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이하 ‘권리장전’)란 이름으로 21개 극단, 22개 작품이 6월부터 10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연우소극장에서 연극적 대응이 방식이 뭔지를 보여주었다. “블랙리스트에 맞선 예술적 저항”이란 제목의 본서 2부에는 이처럼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맞서 저항하는 연극인들의 대응 방식, 그들이 작업 작품에 대한 비평, 그리

고 관련자의 인터뷰 등 여러 주제와 형식의 글 12편을 모았다.

12편의 글 중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코 ‘권리장전’이다. 김수희의 글은 예술탄압에 대한 연극인들의 연극적 대응 방식에 고민과 ‘권리장전’이 탄생과정, 그리고 5개월의 기간사이에 겪었던 고민과 고충, 그리고 성과를 기록한 글이다. ‘권리장전’은 “연대의 방법을 몰랐고 공간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공간을 찾을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이슈에 대한 해석 또한 각자 달랐고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던 21개 극단이 “각자의 방법론을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여 이룩한 5개월간의 연극적 저항이었다. 한국연극사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거대프로젝트에 관객들은 초대권 없이 기꺼이 관람료를 지불하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 총 110회 공연 중 40회 매진을 이룩해냈다. 연극평론가 및 관계자들도 이러한 3·40대 젊은 연극인들의 연대적 저항에 비평적 응답을 아끼지 않았는데, 노이정, 박상현, 김명화, 김미도, 김소연 등의 글들이 그러한 응원들이다.

“열린 사회에서 극장은 아곤의 장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노이정의 글은 ‘권리장전’ 공연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첫째 “사태 속의 자기 경험을 고백하는 형식을 통해 상처를 드러내고 공유하는 방식”과, 둘째 “실제 상황을 재연/재구성/재경험하는 버바팀 연극 형식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구축, 표현하는 방식”으로 ‘권리장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권리장전’의 22개 작품 안에는 이렇듯 검열 피해자의 고백과 상처 치유를 비롯하여 현안에 대한 객관적 시선 확보, 곳곳에 퍼져있는 무차별 공격들의 재구성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를 무대화한 공연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연극적 저항 정신과 연대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존중과 응원을 보내면서 사태를 표현하는 방식, 소재, 주제 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발언도 있었다. 박상현은 그의 글 「연극, 정치를 하다」에서 “자기지시정(self-reference)과 소재중복”, “자기 현시를 넘어 자기연민이 비쳐지기까지”하

는 상황을 ‘권리장전’의 유감으로 지적한다.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는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겪어야 했던 공포, 분노, 무력감을 연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치유의 경험이었고 오랫동안 무력감과 상호불신에 빠져있던 한국연극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었다. 검열 책임자들을 심판하고 검열로 인해 왜곡된 연극 생태계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떠오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이러한 연대의 힘이다. (노이정, 『예술가들, 스스로 아곤의 장을 지켜내다』, 199면)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연극을 제작함에 있어,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를 기획함에 있어 5개월은 긴 시간일 수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이 주관적 시간의 체감 속에 21개의 극단이 22편의 연극적 저항을 무대에 올렸다. 고민의 시간, 변별된 목소리를 낼 시간이 부족했던 연극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어찌면 프로젝트의 강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하나의 주제로 움직이는 프로젝트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어떤 제작 주체들에게는 창작에 있어 그 어떤 압박감을 주기도 한다. 목소리들의 겹침이 반복되면서 다소 유감스런 무대가 오르긴 했지만, 노이정의 말처럼 무차별적인 현 사태 속에서 아곤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빠른 연대가 연극인들에게는 우선시되었을 것이다.

‘권리장전’이 단결된 형태의 전방위적 저항이었다면, 이경성의 <비포 애프터>, 박근형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권리장전’보다 앞선 윤한솔의 <안산순례길> 등은 ‘권리장전’이 보여주었던 연극계의 실천적 행위를 두텁게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발작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 ‘세월호 사건’ 그 반응 속에서 정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갔고 세월호 비극은 애도되지 못한 슬픔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권리장전’이 검열과 블랙리스트



를 통해 비정상적 사회에 대해 연대적 경고를 보여주었다면, <안산순례길>, <비포 애프터>는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비정상적 행동에 맞서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였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애도의 시간을 빼앗긴, 정상의 비정상화를 끊으려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였다. 연극인들은 더 이상 극장 안에 있을 수 없었다.

#### 4. 광장

지난겨울,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연극인들은 검열과 블랙리스트 너머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옮겨가야 했다. 여러 부침 끝에 공연예술인들은 광화문 광장에 블랙텐트라는 임시 공공극장을 설치하였다. 임인자의 언급처럼 “검열에 저항하는 연극인들과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지만, 도달점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본서 3부 “광장극장블랙텐트, 새로운 공공성을 찾아서”에서는 광장으로 비판의 장을 옮긴 연극인들의 작업과 시대정신을 기록한 12편의 글들을 모았다. ‘광장극장블랙텐트’(이하 ‘블랙텐트’)의 입장은 연극장을 넘어 시민, 그리고 사회로 확장되었다.

하나. ‘광장극장블랙텐트’는 박근혜 정부가 운용하는 국·공립극장들이 외면했던 세월호 참사, ‘위안부’ 등 동시대 고통 받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임시 공공극장입니다.

하나. ‘광장극장블랙텐트’는 정리 해고 및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탄압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등 각종 국가 범죄 피해자들과 동시대 시민이 만나는 시민극장입니다. (이하 생략) (‘광장극장블랙텐트 선언문’ 중)

검열, 블랙리스트에 맞서 저항했던 극장의 연극인들은 ‘블랙텐트’ 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와 시선의 폭을 확장하여 사회의 다층적인 문제를 갖고, 극장으로 찾아오는 관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블랙텐트’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이식된 미학 대신 동시대 슬픔과 기쁨으로부터 자라난 연극 미학을, 지금 생성 중인 광장극장블랙텐트 극장과 연극을, 향후 공공극장의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이양구) 등을 고민하였고,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겪으면서 ‘블랙텐트’는 연극만의 전유 공간이 아닌 춤, 무용 등이 같이하는 공공극장으로 변신한다. 그렇다보니 3부는 앞서 1, 2부의 필자들도 함께 하면서 연출가 임인자, 시인 송경동, 연극비평가 김옥란, 『경향신문』 기자 문학수, 연출가 이윤택, 춤 비평가 김채현, 무용평론가 박성혜, 『한겨레』 기자 고 손준현, 연출가 이해성 등 사회 각층의 문화인들이 ‘블랙텐트’를 기록한다.

‘블랙텐트’는 시민의 극장이자 현실의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 엄마들, 국민들은 감싸고 있으나 국가는 외면한 그녀들이 공연한 오세혁 작가의 <그와 그녀의 옷장> 공연은 정상·치유·회복을 지향하는 공연미학을 보여준다. 그녀들의 공연은 연극적 미학을 판가름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따지는 공연이 아니라, ‘권리장전’에서 보여준 스물 둘의 목소리의 광장버전이다. ‘블랙텐트’는 이처럼 “현실 너머의 환상을 꿈꾸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배제당한 타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공극장”(이경미)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한다.

현실에 오롯이 발 딛고 있는 ‘블랙텐트’는 저항의 공간이자 치유와 회복의 극장이기도 하다. 정부를 비판하기에 불온하다는 이유로 검열을 당했던 연극은 시대의 건강한 블랙리스트들이 만든 ‘블랙텐트’에서의 연극 공연을 통해 “본래적으로 정치적이고 불온”한 장르로 회복한다(이윤택).

이 회복된 장르는 9년 동안 물어뜯긴 시민들의 상처를 이윤택 연출의 <씻금>이란 굿판 위에서 위로받고 치유가능성을 도모한다. 또한 비록 “한국무용협회나 원로그룹들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광장을 찾지도, 응원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손준현)으나, ‘블랙텐트’에서 “몸으로 저항”하고 “사유”(박성혜)하는 무용인의 공연이 있기에 광장의 무용은 외롭지만 지금/여기에 유효한 저항정신을 가진 장르로 시민들과 함께 한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블랙텐트’의 공연을 보면서 광장문화의 저항적 움직임에 동참하였고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되짚어보았으며, 죄지은 그들에게 연대가 갖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은 연극인과 공연문화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건강한 시대정신과 운동을 기록한 역사 자료이자,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강력한 증언자로서 저항한다.